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한국과 중국 아동의 비교

유 양¹ · 박인숙² · 문영숙³

¹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²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³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Effects of Perception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Stres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Children

Liu, Yang¹ · Park, In Sook² · Moon, Young Sook³

¹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³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effect of perception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stres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n to supply information for health promotion of children and to promote multi-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Method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80 elementary students each, from Korea and China.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AMOS. **Results:** Social support had a direct effect on self-efficacy for both Korean and Chinese children. In Korea parental rearing attitude had greater direct effect on stress tha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But in China only, parental rearing attitude had direct effect on stress.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support for perception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s predictive variables of stress in Korean and Chinese school-aged children.

Key words: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tress, Children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교 1-6학년의 시기이며 학령기 후기인 5-6학년은 사춘기 시작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발달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며 생애 어느 때보다 많은 발달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Zhang, 2009).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상태(Han & Yoo, 1996; Lazarus, 1993), 우울증(Nam & Lee, 2008), 개인적응 및 문제행동(Park, 2005)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Min & Yoo, 1999)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부모관련 스트레스, 친구로부터의 소외관련 스트레스, 친구로부터의 갈등 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 (2003), Yang (2007)과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Yu, Zheng 과 Wan (2007)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궁

주요어 :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아동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In Sook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 Munhwa-1dong, Jung-gu,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26 Fax: 82-42-580-8309 E-mail: ispark@cnu.ac.kr

투고일: 2010년 9월 1일 1차수정: 2010년 10월 11일 2차수정: 2010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20일

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자립심과 자부심이 강하고,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은 모든 영역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스트레스에 소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행동의 역할모델을 통해 자녀가 신체적,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므로 이를 수행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러 환경요인 중에서 비중이 크고 아동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며 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Kim & Kim, 2008).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환경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으나, 아동의 경우 성인의 사회관계망보다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된다. 즉, 아동기에 있어서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 학교, 또래집단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능력 및 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아동의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이 역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이 없을 경우,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에 더욱 취약해지며 사회적 지지의 결핍 자체가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Kaplan, Cassel, & Gone, 1983). Lee (2003)도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개선시켜 주는 예방적 자원으로서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었을 때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주위사람들이 아동에게 지지행동을 많이 행할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Jeong & Jung, 2004).

아동의 최초의 자기효능감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때 부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형성·발전시키게 되며(Bandura, 1997),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친다(Moon, 2004).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실패와 도전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역경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변화에 의해 형성되어질 수 있으며 Bowlby (1982)는 지지적인 타인이 개인의 유능함이나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고무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의

증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면역체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Bandura, 1997).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등 두 변인 사이의 상관연구에 그쳤으므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동양문화권으로 Yu 등 (2007)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연구 결과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 체제가 달라 교류가 없었으나 현대사회는 중국의 개방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문명의 변화는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한 단위로 묶어놓은 사회적 변화로 양국 간의 이주민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며 연구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양국의 차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아동에 관한 연구가 몇 편 있으나(Feng & Zhao, 2010; Li, 2002; Yu et al., 2007; Zhang, 2004; Zhang, 2009) 양국 간 학령기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의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학령기 후기로 인지 발달로 인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자신과 환경에 대한 평가가 명료해지고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상자수는 G* Power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2로 했을 때 총 325명으로 산출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한국과 중국 각각 20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초등학교 학년제는 같은 6년제이나 입학연령이 달라 학년 간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자료수집하였다. 한국에서는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D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200명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중국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D시와 인구집단과 도시 특성이 유사한 H지역(Huinan)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중국인 한족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자료 수집

실시단계는 연구자가 사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얻고 담임교사에게 충분히 연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한국과 중국에서 약속된 날에 연구자가 직접 담임교사와 함께 오후 조회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응답자의 무기명, 설문내용에 관한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응답하도록 하고 즉시 회수하였으며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20-30분이 소요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지 40부를 제외한 후에 한국, 중국 각각 180명씩(90%), 총 360명을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중국어 설문지는 한국어와 영어의 도구를 중국 간호대학교수와 함께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이것을 다시 한국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간호학 박사후 과정을 마친 중국 간호대학교수에게 감수를 받았는데 1문항의 자구만 수정지시를 받아 보완하였으며, 중국 현지의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문항내용의 타당성을 검증 받은 후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표현, 문장의 이해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쳤다(20090313).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Kim (198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으로는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비과잉-과잉)의 세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수용적, 자율적이고 비과잉 성취압력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α =.91, 중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α =.8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Jung (1995)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세 가지로 설정되어 있고,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α =.94, 중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α =.91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Park (2000)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은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 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고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4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α =.92, 중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α =.83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는 한국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Han과 Yoo (1995)가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교사학교영역, 주변환경영역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모두 42문항이고 응답방식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1점에서, '많이 받는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α =.96, 중국어 설문지의 신뢰도 Cronbach α =.9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Program과 AMO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과 χ^2 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AMOS로 분석하였다.

제한점

본 연구는 한국 D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학교와 중국 H지 역에 소재하고 있는 2개 학교만 선정하여 편의 추출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 학령기 5, 6학년 아동의 연령분포는 11세, 12세가 많았으며(M=11.2, SD=0.9), 중국 학령기 5, 6학년 아동은 12세, 13세가 많았다(M=12.3, SD=1.0), 한국 학령기 아동은 6학년 52.5%, 여아가 52.2%, 자기소유의 집이 55.2%, 종교 있는 아동이 73.3%, 아버지의 연령에서는 '40세 이상' 81.1%, 어머니 연령에서도 '40세 이상' 53.6%, 아버지의 교육 정도에서는 '대졸 이상' 73.6%,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서도 '대졸 이상' 60.4%, 가정경제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아동이 52.8%,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회사원, 공무원, 고급관리자'의 집단이 49.1%, 어머니의 직업에서는 '직업 있음'의 집단이 61.2%로 가장 많았다.

중국 학령기 아동은 6학년 50.6%, 여아가 72.2%, 자기소유의 집이 83.3%, 종교 없는 아동이 85.0%, 아버지의 연령에서는 '40세 미만' 79.9%, 어머니 연령에서도 '40세 미만' 86.5%, 아버지의 교육 정도에서는 '중졸'과 '고졸'이 똑같이 40.2%,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서는 '중졸' 41.8%, 가정경제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53.9%,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무직' 집단이 44.4%, 어머니의 직업에서는 '직업 있음'의 집단이 67.3%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chi^2=104.46, p<.001$), 성별($\chi^2=15.32, p<.001$), 거주형태($\chi^2=28.20, p<.001$), 종교($\chi^2=124.19, p<.001$), 아버지의 연령($\chi^2=129.19, p<.001$), 어머니의 연령($\chi^2=62.87, p<.001$), 아버지의 교육수준($\chi^2=92.09,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chi^2=56.15, p<.001$), 가정경제상황($\chi^2=18.08, p<.001$), 아버지의 직업($\chi^2=14.86, p<.001$)에 대한 분포는 한국 아동과 중국 아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의 비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국 아동(M=3.02, SD=0.43)이 중국 아동(M=2.88, SD=0.43)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3.10, p=.002$). 한국(M=3.18, SD=0.47)과 중국(M=3.19, SD=0.55) 모두 자율-통제영역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하위요인 중 성취압력만 중국 아동(M=2.35, SD=0.59)이 한국 아동(M=2.77, SD=0.63)보다 부모양육태도를 과잉기대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65, p<.001$).

사회적 지지는 중국 아동(M=3.35, SD=0.48)이 한국 아동(M=3.21, SD=0.48)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79, p=.006$). 한국 아동(M=3.50, SD=0.53)과 중국 아동(M=3.42, SD=0.58) 모두 가족 지지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하위요인 중 중국 아동(M=3.34, SD=0.55)이 한국 아동(M=3.10, SD=0.57)보다 친구지지($t=4.10, p<.001$)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교사지지($t=4.22, p<.001$) 영역도 중국 아동(M=3.30, SD=0.56)이 한국 아동(M=3.04, SD=0.6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중국 아동(M=3.08, SD=0.54)이 한국 아동(M=2.81, SD=0.5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87, p<.001$).

스트레스는 중국 아동(M=1.86, SD=0.43)이 한국 아동(M=1.73, SD=0.53)보다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99, p=.047$). 한국 아동(M=2.33, SD=0.80)과 중국 아동(M=2.41, SD=0.73) 모두 학업영역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하위요인 중 부모영역($t=5.24, p<.001$)에서 중국 아동(M=2.34, SD=0.57)이 한국 아동(M=1.99, SD=0.70)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가정환경 영역($t=3.23, p=.001$)에서도 중국 아동(M=1.63, SD=0.55)이 한국 아동(M=1.43, SD=0.6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mong the Children in Korea and China

		Korean		Chinese		χ^2	<i>p</i>
		n (%)	n=180	n (%)	n=180		
Age (yr)	9-10	42	(23.3)	7	(3.9)	104.46	<.001
	11	75	(41.7)	29	(16.1)		
	12	54	(30.0)	62	(34.4)		
	13-14	9	(5.0)	82	(45.6)		
Grade	Grade 5	86	(47.8)	89	(49.4)	0.10	.752
	Grade 6	94	(52.2)	91	(50.6)		
Sex	M	86	(47.8)	50	(27.8)	15.32	<.001
	F	94	(52.2)	130	(72.2)		
Residence	Own	100	(55.2)	150	(83.3)	28.20	<.001
	Yearly rent	42	(23.3)	19	(10.6)		
	Monthly rent	21	(11.7)	5	(2.8)		
	Others	17	(9.5)	6	(3.3)		
Religion	No	48	(26.7)	153	(85.0)	124.19	<.001
	Yes	132	(73.3)	27	(15.0)		
Father's age (yr)*	<40	32	(17.7)	143	(79.9)	129.19	<.001
	≥40	138	(81.1)	36	(20.1)		
Mother's age (yr)*	<40	78	(46.4)	154	(86.5)	62.87	<.001
	≥40	90	(53.6)	24	(13.5)		
Level of father's educational*	Middle school	3	(2.7)	72	(40.2)	92.09	<.001
	High school	26	(23.6)	72	(40.2)		
	College or above	81	(73.6)	35	(19.6)		
Level of mother's educational*	Middle school	4	(3.6)	74	(41.8)	56.15	<.001
	High school	40	(36.0)	55	(31.1)		
	College or above	67	(60.4)	48	(27.1)		
Family economic status*	Good	93	(52.8)	56	(31.5)	18.08	<.001
	Common	71	(40.3)	96	(53.9)		
	Poor	12	(6.8)	26	(14.6)		
Father's job*	Unemployed/Laborer/Service	46	(27.5)	76	(44.4)	14.86	<.001
	Business	39	(23.4)	44	(25.7)		
	Company and Government employee or Manager	82	(49.1)	51	(29.8)		
Mother's job*	Unemployed	64	(38.8)	56	(32.7)	1.33	.248
	Employment	101	(61.2)	115	(67.3)		

*Missing data excluded.

한국과 중국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한국 아동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r=.54, p<.001$), 자기효능감($r=.36,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r=-.56,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r=.50,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r=-.50,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r=-.27,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중국 아동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r=.51, p<.001$), 자기효능감($r=.44,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r=-.68,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r=.64, p<.001$)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r=-.43, p<.0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모두 유의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r=-.42,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한국과 중국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의 자기효능감에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효과 .450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는 부모 양육태도가 직접효과 -0.442 , 총효과 $-.39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지지도 직접효과 $-.336$ 로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하였다(Table 4).

한국 아동의 변수 간 구조모형은 기초 부합치(GFI) .930, 조정 부합치(AGFI) .865, 표준 부합치(NFI) .929, 비표준 부합치

Table 2. A Comparison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 between Korea and China

Variable		Korean (n=180)	Chinese (n=180)	t	p
		M (SD)	M (SD)		
Parental rearing attitude	Reception-rejection	3.10 (.52)	3.09 (.53)	0.14	.892
	Self regulation-control	3.18 (.47)	3.19 (.55)	0.22	.823
	Accomplishment pressure (less-more)	2.77 (.63)	2.35 (.59)	6.65	<.001
	Total	3.02 (.43)	2.88 (.43)	3.10	.002
Social support	Friends' support	3.10 (.57)	3.34 (.55)	4.10	<.001
	Family's support	3.50 (.53)	3.42 (.58)	1.33	.183
	Teachers' support	3.04 (.62)	3.30 (.56)	4.22	<.001
	Total	3.21 (.48)	3.35 (.48)	2.79	.006
Self-efficacy	Total	2.81 (.50)	3.08 (.54)	4.87	<.001
Stress	Parents	1.99 (.70)	2.34 (.57)	5.24	<.001
	Home environment	1.43 (.60)	1.63 (.55)	3.23	.001
	Friends	1.59 (.72)	1.67 (.65)	1.08	.283
	Studies	2.33 (.80)	2.41 (.73)	0.92	.361
	Teachers and school	1.56 (.59)	1.50 (.54)	0.92	.361
	Surroundings	1.49 (.64)	1.61 (.58)	1.10	.274
	Total	1.73 (.53)	1.86 (.43)	1.99	.047

Table 3. Relationship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tress in Korea and China

	Korean			Chinese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Parent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ocial support	.54 (<.001)			.51 (<.001)		
Self-efficacy	.36 (<.001)	.50 (<.001)		.44 (<.001)	.64 (<.001)	
Stress	-.56 (<.001)	-.50 (<.001)	-.27 (<.001)	-.68 (<.001)	-.43 (<.001)	-.42 (<.001)

Table 4. Effect Variables of School-aged Children in Korea and China

Latent variable	Measuring variable	Korean			Chinese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elf-efficacy	Parental rearing attitude	.308 (.110)	-	.308 (.110)	.259 (.247)	-	.259 (.247)
	Social support	.450 (.017)	-	.450 (.017)	.561 (.003)	-	.561 (.003)
Stress	Parental rearing attitude	-.442 (.019)	.051 (.180)	-.391 (.042)	-.469 (.006)	-.008 (.966)	-.478 (.004)
	Social support	-.336 (.039)	.075 (.156)	-.261 (.153)	.150 (.181)	-.018 (.609)	.132 (.148)
	Self-efficacy	.167 (.018)	-	.167 (.018)	-.032 (.387)	-	-.032 (.387)

(NNFI) .938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높았다.

중국 아동의 자기효능감에는 사회적 지지가 직접효과 .561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는 부모 양육태도가 직접효과 -.469, 총효과 -.478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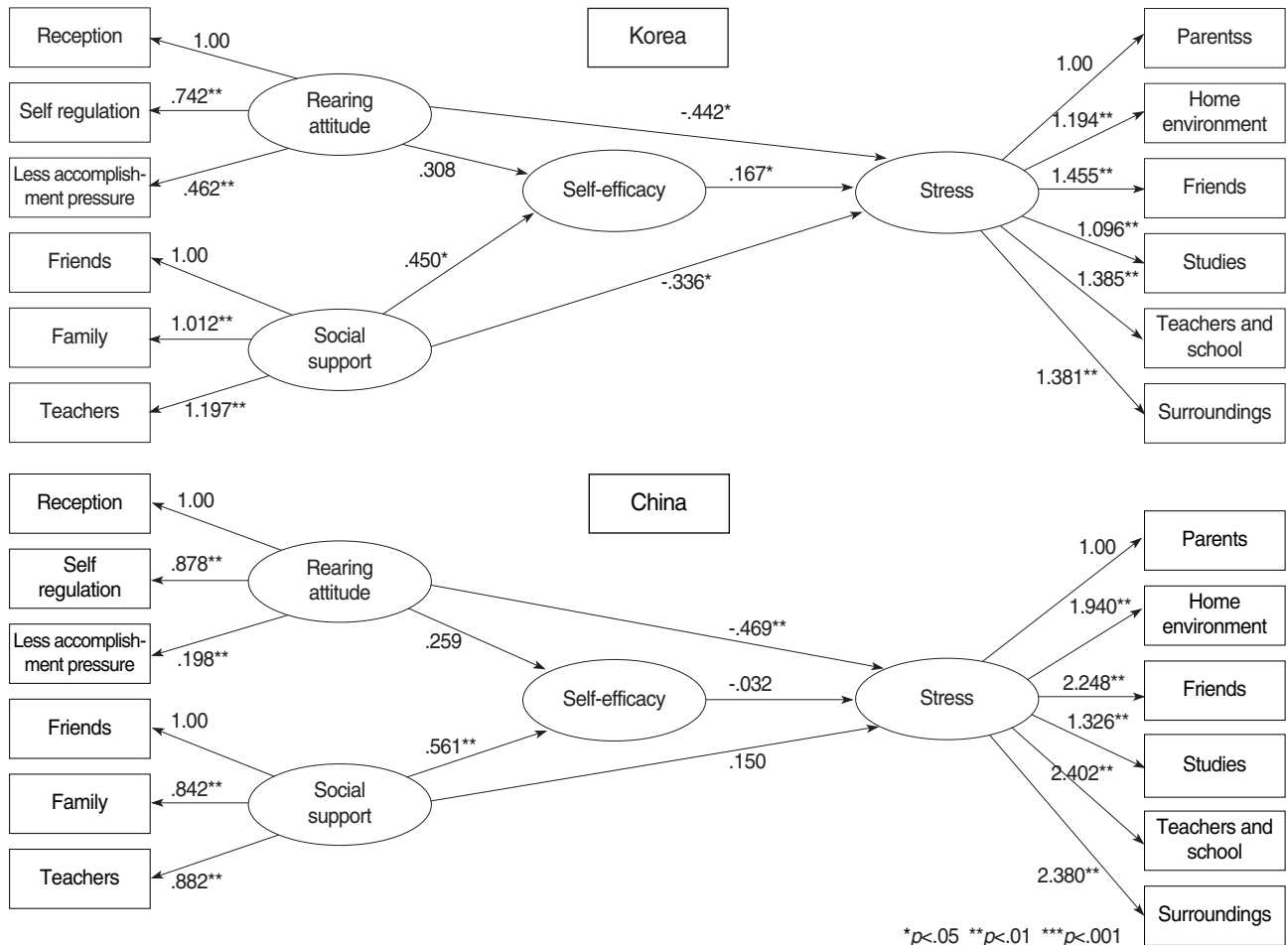
중국 아동의 변수 간 구조모형은 기초 부합치(GFI) .941, 조정 부합치(AGFI) .887, 표준 부합치(NFI) .939, 비표준 부합치(NNFI) .960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높았다.

한국과 중국 자료의 구조모형에서 Measurement Weight가 동일한지 검증한 결과 전체 자료로 구조모형을 만든 경우보다 각각 모형을 만든 경우 자유도 변화량이 9이고 변화량이 18.156으로 유의확률이 .033으로 Measurement Weight가 동일하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국가 간 Measurement Weight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Figure 1).

논 의

현대사회는 세계화로 인해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활발한 경제교류와 이주민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의 사회체제가 달라 많은 영역의 생활환경과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1. Structural model of Korean and Chinese school-aged children.

자기효능감,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중국 아동은 한국 아동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 기대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중국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한국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일태화’ 정책으로 자녀가 한 명뿐이므로 자녀를 통해 학업에 대한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개인적 소망과 자신들의 노후를 자녀가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섞이면서 중국사회에서는 자녀에게 과잉기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Li (2002)와 Zhang (2009)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비교한 결과에서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여아가 점수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Feng & Zhao, 2010) 본 연구대상자가 중국 아동에서 여아가 많았던 점과 관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요인 중에는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외동아들이 형제자매도 없이 혼자 자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친구와 또래를 많이 필요로 하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교류도 많이 하므로 친구에게서 받는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중국 부모의 교육 정도는 대부분이 낮은 수준이고 아동에게 유익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 등도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자녀와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아동과의 대화 부족도 큰 요인이 되며, 부모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없어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교사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Zhang, 2009). Feng과 Zhao (2010)의 초등학교 대상, Zhang (2004)의 연구에서도 친구 지지, 교사 지지를 높게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결과에서 중국 아동은 한국 아동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Bandura (199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로 도전적이고 구체적

인 목표를 선택하며,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Holahan과 Moos (1987), Kim (2008), Moon (2004)의 연구결과에서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되며 아동이 중요한 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사랑과 이해, 격려를 받고 인격과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때 높은 자기효능감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중국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부모 관련영역과 가정환경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가정은 한 자녀 정책으로 대부분 외동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동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유명대학에 들어가고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높은 기대와 요구는 많은 아동들의 실제능력을 훨씬 넘어서서, 아동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 속의 자신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환경요인은 경제적 배경, 부모, 형제, 가정분위기 등을 포함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돈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Kang (2000)은 용돈이 많은 학생일수록 개인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Han과 Yoo (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가계소득이 많을 때 아동은 대체로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중국 아동의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것이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높인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한국과 중국 아동이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간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비과잉적일 때 아동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많이 지각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도 적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a (2002), Moon (2004), Kim (2003)과 Roh (2004)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한국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효능감에 는 한국 아동과 중국 아동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2004)의

연구에서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이 중요한 타인인 교사, 또래집단, 친한 친구의 집단에서 받은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에는 한국과 중국 모두 부모 양육태도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3), Yang (2007)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집단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지각하는 집단의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며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를 같이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 어려웠다. 한국 아동의 경우에 스트레스에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2008)은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가 미약하게 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낮은 상관관계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겠다. 중국 아동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한국아동보다 높았으나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낮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unk (1981)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성취압력으로 작용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불안を感じ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을 줄이고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거나 쉽게 포기하여,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선택하므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Park, Kim과 Kim (2002)도 강한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이러한 성취압력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에는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아동의 스트레스에는 부모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Han과 Yoo (1996)와 Roh (2004)의 보고에 의하면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군과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

준이 낮은 군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에 비해 가정경제가 낮은 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군이 더 많아 이러한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아동에서는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군,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군에서 사회적 지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Zhang (2004)과 Feng과 Zhao (2010)의 Zhang (2004)과 Feng과 Zhao (2010)의 중국 아동의 보고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성별, 학년과의 관계만 나타냈으며 다른 인구학적인 특성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고, 자기효능감과 인구학적인 특성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찾기 어려워 중국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중국 아동의 입학연령이 만 7세로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한국 아동보다 높았으며, 중국에서는 자녀가 한 명뿐이고 아동의 아버지, 어머니의 연령도 한국 아동에 비해 낮았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는 아동 성별, 연령, 출생순위, 부모 연령, 부모 교육정도, 가정경제 등 인구학적인 특성과 관계를 나타냈으므로 추후에 연구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인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 각각 1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자료수집은 2009년 4월부터 7월에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백분율, χ^2 test, 평균값, t-test, Pearson correlation, 효과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영역에서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과잉기대적 태도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영역에서 중국 아동은 한국 아동보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많이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한국과 중국 아동이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간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에는 한국 아동과 중국 아동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스트레스에는 한국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더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중국 아동까지 확대하여 간호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임상에서 만나는 중국인 부모, 자녀관계를 이해하는 데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다문화 시대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 문화적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와 한국과 중국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임상정보 제공 등의 네트워크 형성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 664-678.
- Da, H. M. (2002). Relationship of upbringing given by parents to self-confidence, self-esteem,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of their children. *Journal of Chinese Health Education*, 18, 483-486.
- Feng, Q. J., & Zhao, X. M. (2010). On the social support, ways of response and mental health of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Hebei Normal University*, 12, 123-128.
- Han, M. H., & Yoo, A. J. (1995).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49-64.
- Han, M. H., & Yoo, A. J.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7, 173-188.
- Holahan, C. J., & Moos, R. H. (1981).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65-370.
- Jeong, H. H., & Jung, S. H. (2004).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2), 1-19.
- Jung, D. W. (1995). *A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chool stress and maladjustm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ang, S. M. (2000). *Stresso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Seoul.
- Kaplan, B. H., Cassel, J. C., & Gore, S.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 47-58.
- Kim, K. J. (1985).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perceive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3, 35-52.

- Kim, M. J. (2003).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J. (2008).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ress-coping behavior amo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Kim, Y. H., & Kim, S. J. (2008). Child-rearing attitudes of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4, 79-89.
- Lazarus, R. S. (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 Lee, S. H. (2003). *Difference of brilliant intellect child and general child: Achievement goal, social support, stress and school life refer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i, F. Y.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aring attitudes of Korean and Chinese mothers. Centered on yanbian and jeju*.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Min, H. Y., & Yoo, A. J. (1999).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and coping behaviors on parent-related stress in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9), 1-12.
- Moon, S.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ggress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Nam, Y. J., & Lee, S. (2008). The effect of attachment, self-concept and usual stress (which) children perceived on children's depression.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 Children*, 12(2), 1-16.
- Park, K. J.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aegu University, Daegu.
- Park, S. Y. (2005). Ecological variables on children's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9), 71-84.
- Park, Y. S., Kim, U. C., & Kim, M. S. (2002). The experience of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of students and parents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8, 105-135.
- Roh, S. J. (2004). *The differ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how it affects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Schunk, D. H. (1981). Modeling and attr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93-105.
- Yang, Y. M. (2007). *A study on the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elementary students with the rearing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Gumi.
- Yu, X. X., Zheng, X., & Wan, Y. (2007). Investigation on stressors of pupils in Guilin city. *Chinese Journal of School Health*, 28, 908-910.
- Zhang, Y. (2004). *Brief research on social support of the students in primary school and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Liaoning Teachers University, Liaoning, China
- Zhang, Y. C. (2009). *A study on after school life and academic stress of Korean and Chinese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